

#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단합대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마포지회(지회장 김길래)는 6월 16일 6월 월례회를 ‘국토 환경 청결운동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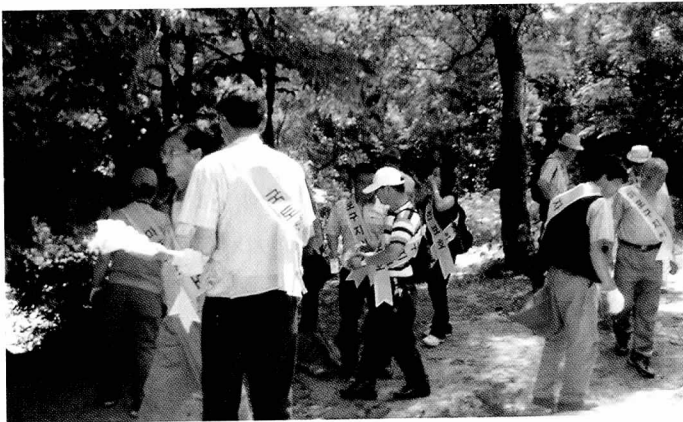
김길래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회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단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보완 관계로 진일보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신차익 총무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이 침수 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자”며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보람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된다”고 독려했다.

이날 국토 환경 청결 운동은 북한산 등산로에서 실시하여 회원들은 등산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면서 청결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협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즐거운 마음으로 국토 환경 청결 운동 및 단합대회를 마감했다.

폐회사에서 지회장은 “앞으로도 국토 환경청결운동에 동참하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고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실시 할 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 마포지회는 긍지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마포를 사랑하고 새로운 변화와 활기찬 마포지회 건설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결의하였다.



## ‘칭찬합시다’ 하재원 회원



본 글은 마포신문 2007년 4월 30일~5월 6일자 ‘칭찬합시다’ 코너에 실린 우리 마포지회 하재원 회원에 관한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원손이 하는 일이 오른 손이 모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재원 회원님과 또 이름 모를 서강의 일꾼들을 칭찬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급식 봉사, 홀트아동복지회, 중부발전센터, 사랑의 전화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 보았지만 집수리 봉사만큼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마포구 염리동에서 조그마한 설비 가게를 운영하는 하재원씨(47, 하중동 거주). 지난 20여년간 도장 설비측량 미장 방수 등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해 온 그는 개인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수리 무료 봉사를 해 주다보니 자연히 입소문이 퍼져나갔다. 지난 2005년 4월 1일 마포구자원봉사센터를 알고부터 어려운 이웃을 내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다보니 작년 10월 마포구집수리봉사단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마포구청 사회복지과 김창숙 주임이 끈질기게 권유해 집수리 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집수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구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창숙 주임의 존재는 절대적이예요,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과 집수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청에서 조달해주거든요, 작년에 독거오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6가구의 집수리를 해 드렸고 올해도 10가구를 완

료했습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하기에 단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본업을 제쳐두고 남을 위해 무료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집수리 봉사의 실제 작업시간은 대원 3~4명이 참가해 대개 하루면 끝나지만 하단장은 4~5일 정도 시간을 빼앗긴다고 한다. 대상가구를 미리 방문해 견적을 뽑아야 하고, 작업 후에도 작업보고서를 만들어 구청에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하단장은 정작본인의 가게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집수리 봉사시 가장 어려운 점은 집주인과의 이해관계이다. 대부분 재개발지역의 세입자가구가 집수리 대상인데 집주인들은 수십년간 방치해오다 무상으로 고쳐준다니 가끔 이런저런 요구를 해 올 때가 있다고 한다. “지붕이 다 무너지고 석가래를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집도 있어요, 우리 단원들이 보강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찾아와 우리 집도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월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세입자 가구를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고쳐달라니 말이 됩니까? 또 얼마전에는 영등포구에서 집수리 요청이 들어와 거절할 적도 있습니다. 마포구가 다 못해주는데 영등포까지 갈 여력이 없거든요.”

하단장의 봉사수첩에는 76건 봉사에 373시간 20분의 봉사 기록이 적혀있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 봉사시간은 훨씬 더 많다고 전한다.